

비교인문학의 방법과 방향

- 마음학을 통한 학제간 연구 -

유 권 중

주제분류 한국유가철학

주요어 마음학, 비교인문학, 유교 심학, 학제간 연구, 마음 모형

요약문

본 연구는 지금까지 마음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이에 동양철학적 마음 이해의 이론적 체계를 현대의 인문학적 맥락속에 자리잡게 하는 방법을 찾아본 것이다. 국내외에서 아직까지 유교의 심학을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적 주제와 연결시킨 예가 매우 드물고, 또 마음에 관한 연구가 철학이나 심리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학문들과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예가 드물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마음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여러 학문들을 하나의 목적에 종합하여 보고자 하는 구상을 논술한 것이다.

마음학을 통한 비교인문학의 추구는 사실 인문학을 학제간 연구의 주축으로 삼고자 하는 것, 특히 동양의 전통적인 마음 연구의 맥락을 현대의 학문맥락 속에 定位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마음학은 아직 구상의 단계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 앞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더 자세한 경험적 사례와 그로부터 입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동양에서 개발된 마음이해를 비교의 준거로 삼아서 인문학 상호간, 인문학과 자연과학, 문화 상호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비교 인문학적 연구방법의 정착이다. 둘째 그러한 방법이 시대적 문맥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도 하나의 기대효과이다. 셋째 교육현장과 사회현실에 적용 가능한 이론·실천이 통합된 마음 모형을 개발하여 후속연구를 촉진하려는 것도 그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서 인문학의 현실 적합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마음학이 목적하는 바이다.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사회 혹은 한국의 학계에서 제기되는 인문학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근거로 인문학 본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모색, 특히 학제간 연구 방법으로써 구현할 수 있는 인문학의 역할을 목표로 삼아 고찰한다. 인문학의 이상이나 목적에 관한 추상적인 논의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학제간 연구 방법을 통한 인문학 본연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다만 이 작업을 인문학 전 영역에 걸쳐서 행하기보다는 마음에 대한 연구라는 영역에 한정하여서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아직까지 일반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마음에 대한 연구를 마음학이라고 이름짓고, 이것을 체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비교인문학에 관한 구상을 구체화한다. 이 구상은 한국의 유교 전통이 개발했던 心學의 지식체계를 현대 인문학 내지는 현대 학문 전체의 담론 주제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그 이유는 불교 뿐 아니라 유교가 형성해 온 심학의 전통은 현대의 학계에 대해서도 매우 풍성한 논의를 가능하게 해줄 자료와 자극을 함께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하에 몇 가지 중요한 반성을 하여 왔다.¹⁾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모두 해당하는 것인데, 이유는 막론하고 인문학이 지식대중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며, 따라서 그들의 인문학 선호를 다시 높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각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한 자각은 다시 이 시대의 인문학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자각과 통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 혹은 시대적 패러다임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문학은 방관자적 위치에 머물러서는 아니된다는 자각과도 통하는 것이다.²⁾ 그로

1) 백중현, 「한국 인문학 진흥의 한 길」, 『인문정신과 인문학』, 아카넷, 2007, 123-125쪽 참조

인해서 통섭적 혹은 융합적 지식체계의 구축에 인문학이 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를 위해서 인문학은 타 학문과 어떻게 소통하고 융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기에 이르렀다.

근대에 들어와 물질적 영역을 다루는 과학의 지식추구의 방법이 더욱 많은 설득력을 얻는 반면, 이성이나 가치 혹은 의미의 영역에 관련된 인문학의 지식추구의 방법은 상대적인 열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상황은 변함이 없다. 사실은 이것이 인문학이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遠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물질적 영역에 관련되는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갈수록 더욱 중시되는 상황이어서 인문학이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인문학은 학문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은 인문학만이 다룰 수 있는 지적 영역을 이 시대의 학문적 맥락 위에서 재확인하거나 아니면 물질영역과 관련은 있지만 그것과 구분되는 가치와 의미 영역에 대한 지적 체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이 시대의 인간의 삶을 위해서 인문학은 여전히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생물학이나 인공지능, 또는 신경과학이나 언어학 등의 영역으로부터 제시되는 인간과 세계의 새로운 이해 방법이나 여러 가지 학문들이 연합하여 제시하는 더 복잡하면서 더 포괄적인 지적 패러다임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에서 인문학이 인간의 존재와 삶에 관한 의미와 가치의 세계를 언급할 수 있으려면 전통적인 방법으로부터 변화가 필요

2) 한국학계에서의 인문학 방향은 가까운 일본의 인문학 방향과 대조되는 면이 있다. 예를 들면 2001년 발간된 『인문학@미래를여는길』(전통과현대)은 연세대 문과대학 교수 30인의 공동집필서인데, 이는 인문학의 여러 분과의 학문을 학과별 학문적 특성에 따라서 인문학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글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1997년에 번역 출판된 『知的 논리』(경향)는 일본 동경대 교양학부 인문계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이다. 이 서적은 20세기로부터 21세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특히 인문학과 타과학간의 융합적 지식의 논리, 현대 학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의 논리를 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에 인문학이 타과학과의 관계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후자의 태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인문학이 전통적인 방법만 고수하고, 관점에 변화를 주지 않고, 인간과 세계를 보는 방식을 쇠신하지 않는다면, 인문학의 소위는 정해진 이치가 되는 것이다.

과거 1990년대에는 인문학의 한계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방법이 ‘응용’ 혹은 ‘표현’ 등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인문한국사업 연구단들이 많이 표방하는 표어가 소통 내지 탈경계 등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무엇보다도 타학문에 대한 인문학의 소통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인문학적 진실의 통용, 혹은 인문학적 지식과 교육의 효능을 높이고자 하는 공동의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현대의 지식세계의 경향과 흐름은 기존의 분과학문적 방식에 의한 지식 생산으로부터 융합학문적 방식에 의한 지식의 생산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인문학의 소통력의 향상이 절실한 화두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인문학 진흥을 위해 인문학자들이 노력해온 내용과 그 방식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고, 인문학 본령의 회복을 꾀하면서도 학계간 연구 내지는 융복합적 학문 형성의 한축으로서 인문학의 역할을 찾아보는 일은 향후 인문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 현대 인문학의 반성

한국의 인문학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의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만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⁴⁾ 그러나 한국학계의 현행 인문학을 서구의 Humanitas/humanities에 근거를 두는 학문으로 이해한다면 한국에서의 기원은 근대서구문명의 수용과정에서 맥락을 잡을 수 있

3) 이인식, 『지식의 대융합』, 고즈원, 2008년 참조

4) 이에 대한 정리가 체계적으로 된 것은 윤사순·이광래, 『우리사상 100년』, 현암사, 2001년을 참조.

을 것이고,⁵⁾ 그 경우 대략 개화기로 언급되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이 맥락 형성의 시점이 된다. 만약 그와 달리 서구의 그것에 해당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학문까지 대상으로 삼아 연원을 찾는다면 한반도에서의 인문학은 대략 2000년 정도 유교 불교로 이어지던 맥락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후자처럼 시간대를 넓게 설정하면, 현대 한국 학계의 인문학은 서구의 인문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적 학문 방법은 물론 인문학적 이상까지도 서구의 그것으로 대체해버린 셈이 된다. 그 변화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유교와 불교를 통해서 서구를 바라보던 시선이 서구 인문학의 시각을 통해서 유교와 불교를 비롯한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인문이란 말의 유래는 『周易』의 賁卦 象辭에서 찾을 수 있다. “天文을 살펴서 時變을 알고, 人文을 살펴서 천하를 化成한다”⁶⁾는 의미가 그것이다. 여기서 인문이란 자연을 바탕으로 건립된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통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서 유학이 인문학의 지적 맥락을 형성하여 왔고, 그것이 동아시아 일대에 널리 자리잡았다. 이 의미로부터 생각해보면 인문학이란 인간의 존재와 생활의 근본적 방식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사고, 판단과 행동 등의 논리와 방법까지도 조직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전통 인문학으로부터 서구 인문학으로의 맥락 구성상 발생한 변화는 단지 학문 체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학문을 통한 삶의 영위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그 연구대상의 변화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연구 방법과 관점상의

5) 사실 서구의 인문학 역시 그 전통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은 뚜렷한 편이 아니고, 학자마다 인문학을 규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한국의 인문학의 서구화 과정이나 그 학문 경향에 대한 논의도 아직은 일정한 맥락을 잡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이태수, 「학문체계 안에서 인문학의 위치에 관한 고찰」, 「현대의 학문체계」, 민음사, 1994. 211~213쪽, 이종흡, 「서양 근대초의 인문학과 인문정신」, 「인문정신과 인문학」, 아카넷, 2007, 및 강상진, 「서양 고중세의 인문정신과 인문학」, 앞과 같은 책, 참조

6) 『周易』 賁卦 象辭, 觀乎天文以察時變 觀乎人文以化成天下

변화인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의 유학자들이 자신이 신념을 세우며 추구하던 유교의 학문방법이 爲己之學이었다면, 오늘날의 유학사상 연구자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유교의 이상과 원리를 객체로 놓고 그것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유교의 이상이나 원리에 대한 신념의 유무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유교의 가르침을 당사자적 방법(first person methodology)에 의하여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찰자적 방법(third person methodology)에 의하여 대상을 객관화하여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인가 하는 차이도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전적으로 서구 인문학을 수용한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한국사회의 인문학은 당사자적 방법은 외면하면서 관찰자적 방법에 기울어져 있다. 이것이 과거의 전통적 유학이나 불교학자들의 학문태도와 현대의 인문학자들의 태도 사이에 발견되는 중요한 차이이다.

1990년대까지의 학계에서 현대의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이 고답적인 연구의 태도와 분위기를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감지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왔다.⁷⁾ 그래서 나온 방법론은 1990년대까지는 응용인문학 혹은 표현인문학이란 개념으로 정립되었고, 21세기 들어와서는 최근의 ‘통합의 인문학’⁸⁾이라고 개념화한 것도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가 있지만, 대안을 강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다 대안적 방법이 강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 때문에 아직까지 주목할 성과를 낸 것은 추척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에 대한 확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원래 인문학의 성과란 공학에서 기계를 만들듯이 구체적 결과물로 파악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성과는 단기간에 관측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7) 예를 들면, 이진우, 「한국 인문학의 서양 콤플렉스」, 민음사, 1999, 정대현 외, 「표현인문학」, 생각의 나무, 2000, 조성택, 「해의 한국학과 연계한 국내인문학 진흥방안」, 한국인문사회연구회, 2002, 김동노,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학술정책」, 한국인문사회연구회, 2002, 김여수, 「인문학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 한국인문사회연구회, 2002, 이인식, 「지식의 대융합」, 고즈원, 2008, 박이문, 「통합의 인문학」,知와 사랑, 2009, 등이 인문학 대안을 강구한 연구서들이다.

8) 박이문, 「통합의 인문학」, 知와 사랑, 2009

에 걸쳐서 숙성되어 나중에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거의 인문학적 맥락의 중심을 지켜온 유학이나 불교, 그리고 그것들을 대체한 서구 인문학의 성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을 질문하기는 쉬워도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은 성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측량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 성과는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질문의 의도 역시 과거의 인문학의 의의와 성과를 부정하기 위한 데 있지 않고 지금보다 더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 사실 1990년대부터 진행되고 다시 2000년대 들어와 더욱 심화된 인문학에 대한 성찰과 전망은 이같은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학계에서 인문학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해온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앞에서 소개한 인문학에 대한 문제제기의 종류는 크게 보면 다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인문학의 본령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것은 정대현 교수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표현인문학』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⁹⁾ 즉 독서를 통한 이해에 한정하는 이해인문학과 차별화하여 자아를 표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강조한 표현인문학 개념을 내세웠다. 그리고 인문학의 궁극을 ‘자유’의 획득과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있다.¹⁰⁾

둘째는 서양인문학에 대한 종속 내지 의존적 태도에 대한 반성이다.¹¹⁾ 이제 우리도 서구의 인문학을 접하면서 그것을 근본방법으로 삼아 우리의 학문세계를 키워온 역사가 근 100년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자체의 인문학적 틀을 잡고 우리의 삶과 문화의 맥락에서 형성되는 인문

9) 정대현 외, 『표현인문학』, 생각의 나무, 2000

10) 이에 대한 비판적 반론은 김영건, 『표현인문학의 빛과 어둠』, 『신학과 철학』, 3집,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01 참조

11)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운동 형태로 파악되는데, 가장 뚜렷한 흐름 가운데 하나가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 발간한 서적은 국립국어원 지음,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사무집』, 푸른사상, 2008이다.

정신을 산출하면서 그것을 외국의 인문학자들과의 담론 주제로 삼아야 할 때도 된 것이다.

셋째는 해외 한국학과 연계를 통한 국내인문학의 진흥을 꾀하는 방향이다.¹²⁾ 이는 인문학 위기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학문공동체를 염두에 둔 구상을 한 것이 이러한 방향의 특징이다. 이에 의하면 국내 인문학의 특수상황이 고찰되는데, 그것은 ‘국내 인문학’과 ‘수입 인문학’의 두 부류로 구분하고, 전자를 한국학이라고 부른다.¹³⁾ 그리고 주로 한국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국학자료의 영역 혹은 외국어 번역을 주된 아이টে으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시작한 인문한국 사업에는 인문학 분야의 경우 2008년까지 약 20개의 연구단이 각자의 의제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 이들의 의제는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의제 혹은 연구계획에는 학문간 소통, 문화간 소통 내지 학계간 연구의 방법, 내지는 학문 영역간의 탈경계를 지향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¹⁴⁾ 이러한 경향을 통해서 한국 인문학의 현재적 문제점에 대한 학계에서 행하는 반성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3. 비교인문학의 기본설계

최근들어와 인문학의 소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을 담아서 표현된 개념은 ‘문화인문학’,¹⁵⁾ ‘통합의 인문학’ 등이다. 이들은 인문학의 현실에

12) 조성택, 『해외 한국학과 연계한 국내인문학 진흥방안』, 인문사회연구회·한국교육개발원, 2002.

13) 위의 책, 6-9쪽 참조

14)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탈경계 인문학의 구축과 확산”, “상상력과 테크놀로지-기계와 인간의 인문학”, “트랜스내셔널 인문학”, “문화로서의 아시아: 사상 제도 일상으로 아시아 재구성하기”, “21세기 실학으로서의 사회인문학” 등을 거론할 수 있다.

15) 이상엽, 문화인문학-인문학의 문화학적 기획, 『해석학연구』, 한국해석학회, 2001 참조

대한 반성의 결과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방법을 시사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대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볼 때 분명한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 학문간의 융합, 혹은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 것은 학문간 문화간의 소통을 인문학으로써 성취하는 과제이다. 학제간 연구 혹은 융복합적 학문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각각 영역을 달리 하는 학문간의 소통과 결합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에 인문학 영역간 상호 소통 혹은 인문학과 타학문, 나아가서 문화와 문화 사이의 상호소통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전망이나 제안은 매우 미흡하다. 앞에서 살폈듯이 인문한국 사업에 선정된 다수 연구단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 역시 인문학의 소통력 강화라고 하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현재의 한국 인문학의 문제가 소통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통의 성취를 지향하는 이유나 방법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심적 화두임에는 틀림없다. 필자 역시 그것이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소통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인문학 연구자 자신들이 체감하는 사실이 곧 인문학의 소통 불가능성 혹은 소통력의 미흡이기 때문이다. 소통이란 한 자리에 모여서 학술대회를 열고 각각의 발표를 한다고 해서, 혹은 여러 연구자가 각각의 관심사에 따라서 작성한 논문들을 하나의 책자로 엮어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활동량이 많더라도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연구자들간의 진정한 의사소통, 그리고 공동의 관점과 공동의 논리에 입각한 이론의 개발과 정립, 현상의 관찰과 분석, 그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제작된 연구업적이라야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문학의 소통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 조건을 생각해볼 수 없고, 그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보다도 피차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상대방과

나와의 견해의 차이는 물론, 나아가서 어떠한 관점 내지 논리에 의한 차이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비로소 토론이 시작되고 차이를 좁혀서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과 세계를 보는 관점과 방법에 있어서 인문학 각 분야간의 차이,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과 인문학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게 마련이고, 또 존재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다르게 생각하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면 소통과 융합은 불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피차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면 할수록 토론도 더 원활하게 되고 나아가 이해와 소통도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계는 상호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차이를 분명히 하고 그 차이를 전제하고서 상호 토론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데에 매우 인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귀착되는 것을 단지 연구자들의 열의나 의지가 미약했던 것을 탓할 수만은 없다. 그보다는 학문하는 방법상의 중요한 조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즉 상호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상호 토론과 이해 및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곧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교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 혹은 공동으로 설정한 기준을 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견해를 견주어 보는 것을 말한다.¹⁶⁾ 그러한 방법의 적용이 곧 개별적 연구자가 타학문의 관점이나 지식을 검토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관점과 견해를 갖대

16) 인문학의 영역에서 비교를 방법으로 삼는 연구는 종교학의 분야에서 최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문학의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비교를 주제로 삼는 연구들이 인문학적 주제는 물론 사회과학적 주제를 채택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본연구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비교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유용한, 「비교종교학 연구의 최근 동향: 학문적 엄밀성이 요구되는 비교종교연구와 종교학」, 『종교문화연구』, 제8호, 한신대종교문화연구소, 2006, 류성민, 「비교종교학 연구의 최근 동향에 관한 논평」, 『종교문화연구』, 제8호, 한신대종교문화연구소, 2006을 참조.

로 삼아서 타학문의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제간 연구, 혹은 학문간 융합을 시도할 때에는 개별적인 기준 자체가 학문간의 대화와 소통을 가로막거나 어긋나게 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 그 경우 개별적 기준을 넘어서는 공동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동의 기준의 확립과 그것에 입각한 비교가 바로 비교인문학이 성립하는 기초이다. 지금까지 인문학 각 영역간에 혹은 인문학과 기타 영역의 학문 사이에는 이를 표방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예가 매우 드물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서들도 인문학의 소통력 증대의 필요성은 말하지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비교의 방법을 제시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인문학이든 혹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 예술, 공학 등이 다루는 분야는 사실 인간과 세계의 다양한 모습이나 변화와 흐름, 나아가서는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 가치 등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도 실은 비록 여러 가지 연구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감관과 사유가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해가 학문마다 각각 다를 뿐 아니라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안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안목 역시 이론에 의존해 있거나 문화적 맥락, 혹은 종교적인 신념 등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정되거나 합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공동으로 다루는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마음 신체 사회제도 등등 인간 또는 세계에 널리 있는 수많은 현상과 사건들이 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학제간 연구의 체계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학문 영역들이 공동의 연구대상을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한 예로서 좋은 것은 인지과학이다. 인지과학이란 철학, 심리학, 인류학, 신경과학, 언어학, 인공지능 등이 함께 구성하는 학문간 느슨한 연합의 학제간 연구 혹은 융합적 연구인데, 이들의 공동담구의 대상은 인지(cognition)이다.¹⁷⁾ 그로 인하여 학문의 경계를 넘

어서서 공동의 연구를 발전시키고, 그 결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가는 학문의 기지가 되고 있다. 인지과학은 다시 거기에 참여하는 개별 학문의 영역에도 새로운 논의를 끊임없이 일으켜서 개별학문의 발전적 전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비교와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느 학문의 관점이나 이론이 절대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인지에 관해서도 신경과학이나 생물학이 물질적 기반을 연구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결정론적 사고는 심리학, 철학이나 언어학에 의하여 혹은 인류학에 의하여 거부당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공동의 연구 대상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무엇을 통로로 의사소통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가령 어떠한 이론을 택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택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패러다임보다도 더 원천적으로 실재하는 현상, 혹은 인간의 언어 자체를 통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론적 관점에 차이가 있고, 나아가서 패러다임에도 차이가 있는 학자들간에 공동의 관심사를 정해서 하나의 공동의 토론회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 최대공약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통의 수단을 정하는 방법에도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해당 학제간 연구자들의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 능력 혹은 연구의 현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결정될 것이다. 다만 참여하는 학문간에 가장 원만한 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공동으로 정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고찰에서는 비교인문학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마음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음학이란 인간의 마음에 관한 학제간 연구

17) 이인식, 「지식의 대응법」, 고즈원, 2008, 17-19쪽 참조

18) 이정모, 「인지과학적 접근에서 본 “마음” 개념의 재구성: 심리학 외연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집 2호, 한국심리학회, 2007 참조, 그리고 2006년 한국심리학회 주최 심포지엄 “뇌와 심리, 적인가 동지인가?”에서 이정모 교수가 발표한 「신경적 설명과 마음 개념의 재구성: 인지과학의 새 움직임의 의미」 참조

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마음 및 그것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학문이면 어느 학문이든지 참여가 가능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마음학이란 마음을 공동의 비교의 틀로 삼아서 학문 상호간, 문화 상호간에 상호 공통적인 영역과 관심의 내용을 거론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견해 및 관점의 차이를 확인해 가면서 인간의 마음에 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여 갈 뿐 아니라 나아가서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아직 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확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교인문학의 대강의 방법과 열개를 제시하고자 한다.

4. 마음학의 구상

마음은 인문학 뿐 아니라 기타 여러 학문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인간의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란이 많은 영역이며, 또 각 학문마다 주장하는 마음의 진실은 학문의 수만큼 혹은 학자의 수만큼 다양하다. 그 때문에 마음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대부분 학문의 공동 관심사이며, 또한 어느 학자에게나 자신의 학문적 문화적 행위를 부단히 생성하는 내면의 場이다. 그 뿐 아니라 학문활동이나 사회활동과 관련된 認知, 情意, 행동과 관련된 내용의 분석과 예측은 마음과의 관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마음에 대한 연구는 학문활동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과제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 이미 마음과 관련된 현대의 융합학문에 대한 소개를 한 연구서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서가 주로 과학과 공학계통의 융합을 말하고 있는 것¹⁹⁾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마음학은 유교적 心學의 전통과 동서양의 인문학적 전통이 현대의 학문과 소통되고 융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 차이점이다.

19) 이인식, 앞의 책 참조

현재 학계에서 진행되는 마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기는 하지만 분산된 전개 형태를 보인다. 즉 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뇌과학, 인류학, 교육학, 언어학, 예술 등 각 영역별 연구와 담론은 매우 왕성하게 이루어지지만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담론과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요즘 국내외 학계에서는 이같은 心腦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지현상에 대한 주목으로부터 마음의 해명으로 관심사의 이동이 감지된다.²⁰⁾ 이러한 인지과학적 관심사는 생물학 혹은 신경(뇌)과학과의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존재의 보편적 이해의 틀을 재조명한다는 취지를 지니는 것이다.

반면에 문화심리학의 분야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문화적 맥락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연구가 그리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이 관점은 위에 소개한 인지과학의 물리주의적 접근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문화와의 상관성 속에서 형성되는 마음의 상대성을 주목하는 것이다.²¹⁾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은 마음 연구의 기반을 보편적 절대성 위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상대성 위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으킬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은 한국의 전통적 마음에 관한 이해를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하나의 정합성을 확보한 독자적인 이론의 세계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마음에 관한 연구는 단지 뇌과학적 차원에서 마음의 물리적 근거로서의 뇌 혹은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DNA등과 같은 물질적 근거의 해명에 치중하는 것은 하나의 편중된 연구가 될 수 있으며, 문화와 철학 등과의 상관성에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동양철학에서 개발해온 유교의 心學 혹은 불교의 唯識學 등을 독자적인 학문적 맥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0) 이정모, 앞의 두 논문에서도 인지과학과 심리학과의 연관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철학분야에서는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혹은 신경과학과의 연관성을 따지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21) 최상진 외,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지식산업사, 1999, 서론 참조

이같은 내용에 따라서 마음학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인문학적 전통의 맥락에 근거하여 여러 분야의 마음 연구를 연결 통합해보고 마음 이해의 진정한 인문학적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연구의 기획이 마음학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인문학적 방향성이란 궁극적으로 학문과 문화가 추구해야 할 인문적 가치와 진실을 현대의 학문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구현하려는 것을 뜻한다.

마음학이 학제간 연구 혹은 학문 융합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성격에 기인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두루 걸쳐 있는 복잡계적 현상이다.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세계와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의 장소이거나 이해를 일으키는 작용들의 복합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마음은 카메라처럼 단순하지 않다. 카메라는 사물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지각은 자기와의 관계성 위에서 마음의 선택, 해석,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마음의 작용에는 주체의 뇌, 신체, 언어, 문화, 경험, 습관, 환경 등이 다양하면서도 복잡하게 관여한다. 따라서 마음에 관한 이해는 그것의 다양한 연관 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요청한다.

둘째의 이유로는 마음은 타고난 상태로 그 본질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운영하는 삶과 문화의 맥락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발현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한다. 이러한 시간적 흐름과 주체의 삶의 과정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 마음의 복잡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혹은 그 체계에 대해서 포괄적인 시각으로 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²²⁾

22) 이와 관련하여 교육학 철학 심리학 등에서 논의되어 오는 발달이론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유교와 불교 도가 사상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시켜온 수양론의 전통을 함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들 수 있는 연구는, 장성모 외, 『인성교육의 동양적 전통과 초등 도덕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연구보고 RR 96-1-1, 1-36, 1998, 문

셋째의 이유는 마음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서 마음은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구성해가는 주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특히 동양의 지적 전통에서 강조된 것인데, 예를 들면 불교에서 근본적인 세계관으로서 제시한 一切唯心造라든가, 유교의 전통에서 心을 一身의 主宰者로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마음은 분석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길들이거나 잘 키워야 하는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마음 연구의 종착점은 마음의 실체를 해명하거나 그 모습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학의 구성은 단지 철학적 논의에 한정할 수도 없고, 심리학적 혹은 뇌과학적 관찰에 가둬둘 수만은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문학적 견지에서 마음학으로써 기존의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비교하여 보고 소통할 수 있게 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마음에 관한 연구의 종착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연구자의 관심이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적어도 인문학의 관점에서 융합적 연구 혹은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식의 체계에 인문적 가치를 담아내어 현대인의 삶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고안인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마음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와 인문적 가치와 진실을 함께 엮어서 인간의 삶에 유익한 실천적 방법을 개발한다는 것은, 곧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인 인간다움의 진실을 현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시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동서양의 전통적 진실은 새로운 학문의 지식들의 맥락과 만남으로써 재해석될 부분은 재해석되고 또 응용될 것은 응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동서양에서 지켜온 인간다움의 진실이 현대에도 유용한 것은 지속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옥, 「구성주의 유아교육과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문미옥·류철진,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제 21권, 제1호, 한국 아동학회, 215-234, 2000.

따라서 마음학이 지향하는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첫째 생태학적 접근 방법을 추구한다. 이는 마음을 몸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통찰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내면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표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을 제외한 문화는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모두 마음의 표상이라고도 간주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마음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에 걸쳐서 상호 연관을 맺거나 순환적인 관계를 지닌 현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학적 접근법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는 비교문화적 접근 방법이다. 마음을 표상하는 체계 혹은 그 결과로서 문화는 지역과 민족마다 차이가 있다. 이를 회통시켜서 인간의 마음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교문화적 접근 방법이 필수적이다. 셋째는 학제간 접근 방법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인문학 상호간, 인문학과 타과학간의 상호 연계를 맺는 공동연구의 방법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전통철학이 설정한 지혜의 빛, 즉 인류가 생존을 지속하는 이상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학문과 문화의 흐름이 선순환적 체계를 이루도록 연결망을 구성하는 인문학적 전망을 구체화하려는 것이 곧 마음학이다.

5. 마음학의 방향과 목적

마음학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작용한다. 즉 현재 한국의 인문학계는 매우 폐쇄적인 지적 풍토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 풍토는 인문학 상호간에도 대화와 소통이 미흡할 뿐 아니라 타학문과의 소통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나아가서 교육받은 대중들의 타인과 타계층,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력이 부족한 이유에도 이러한 인문학의 풍토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인문학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비록 견해와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 전체가 조화가

가능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인문학의 역할의 문제이며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학이란 개인 사회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공존과 조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학적 차원의 마음 이해의 틀, 그리고 마음 계발을 위한 방법의 모색이 절실하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겪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근본에 해당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마음학이 지향하는 것은 마음에 관한 학문적 탐구와 실천적 지혜의 융합이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들의 이론적 차이를 비교하고 조정하면서 인문학적 지혜를 현대인의 삶 속에 실현가능한 것이 되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마음학이다. 그러므로 현재 필자의 입장에서 실현가능한 마음학의 목표를 간략하게 다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동아시아의 전통적 지혜의 발전적 계승, 둘째 현대 학문적 성과를 수용한 인문학 지평 확대, 셋째 학문간 집단간 문화간 비교와 소통을 위한 통합적 패러다임 구축이다.

첫째 목적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마음이해의 전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마음 이해의 전통을 중시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인의 마음 이해는 바로 이것에 기초하여 틀이 형성되고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³⁾ 물론 전공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이 있어서 통일되기 어려운 면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표현할 때에 전공을 막론하고 한국어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비록 영어나 기타 외국어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어로서 이루어진 마음 및 그것과 관련된 개념과의 상호교환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어로 이루어진 개념체계를 사용하게 되면 은연중에 혹은 확연하게 한국어 개념으로 파악되는 마음의 체계와 작용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23) 최상진, 『한국인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 유권중·최상진, 『한국인의 내면에 形象화된 ‘마음’: 한국인의 마음 모델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동양철학연구』, 34집, 동양철학연구회, 2003.

않고 이루어지는 마음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기초의 流動 혹은 浮游 현상이 발생하여 그것이 연구의 진척과 확립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유교의 心學, 불교의 唯識學은 독자적인 마음에 관한 이해의 틀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립해 왔다.²⁴⁾ 그리고 그것은 현재 한국인의 자기 마음 이해의 근본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불교 혹은 유교의 마음 모형을 현대적 학문의 관점과 방법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조망하는 작업은 인문학적 전통이 구성한 지혜를 현재에 되살리는 작업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혹은 동아시아에서 구축해온 마음에 관한 논의의 맥락과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된 인간의 삶의 향상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현재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아울러 한국학계가 외국학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한국적 학문적 맥락에 근거한 보편적 담론의 주제를 개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목적과 관련하여 확장된 마음 연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적 마음 이해에 기초하되, 몸과 마음의 분리, 인간과 세계의 분리라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마음을 몸, 그리고 환경과 연관하여 해명하는 확장된 마음의 이론(theory of extended mind)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인간의 몸과 환경을 마음의 구성물 혹은 外化된 마음이라는 의미로 봄으로써 사회 윤리 법 교육에 관련된 이론과 방법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는 마음이 갖는 차원을 단지 인지나 지각에만 한정하지 않고 윤리, 사회문화, 종교, 예술 등의 영역으로도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²⁵⁾

24) 동양철학과 관련해서는 겨우 유교의 심학과 인공지능과의 연관을 통한 새로운 유교 마음모델의 해명, 혹은 심리철학과 유교 심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을 뿐이다. 유권종 외, 『유교적 마음모델과 예교육』, 한국학술정보, 2009 참조

25) Harre, R. *The social construction of emotions*. NY: Blackwell, 1986, Moscovici, S.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Farr & S. Moscovici (Eds.), *Social representations* 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등 참조

그리고 셋째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에 마음을 개인의 내부에서만 찾기 보다는 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찾는 방법도 중요하다.²⁶⁾ 시대와 문화 환경의 다양성과 중층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문화와 관련된 인문학적 마음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또한 마음학의 방향이다. 아울러 문화간 차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²⁷⁾

그 밖에도 마음학에서는 윤리와 관련된 마음 연구를 중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삶과 관련된 실천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윤리이며, 윤리 역시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중요한 작용영역이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의 최근 성과에 근거한 心腦관계에 대한 연구²⁸⁾를 수용하면서도 마음과 윤리, 인지와 정서의 관계를 윤리와 관련지어 살피고, 윤리의 身心的 근거를 비롯하여 다양한 철학적 논의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또 윤리에 관한 연구는 집단간 문화간 소통과 화합을 추구할 때에 요청되는 공존의 윤리를 개발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마음학이 하나의 학문체계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구성하는 이론적 진실의 검증 실증의 체계가 함께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영역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간단하게 기존에 시도했던 사례 한 가지와 또 반드시 해보아야 할 방법 한 가지에 한정하여 언급하도록 한다. 전자는 아동 학습 및 마음 능력 개발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그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유교의 예교육의 방법을 현대의

26) Mead, G. H.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Miller, J. G. Cultural psychology: Implications for basic psychological theory. *Psychological Science*, 10(2), 1999.

27) Shore, B. *Culture in mind: Cognition, culture, and the problem of mean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8) 마이클 S. 가자니가 지음, 김효은 옮김, 『윤리적 뇌: 뇌과학으로 푸는 인간 본성과 생명윤리의 딜레마』, 바다, 2009. 참조

29) 인지과학으로부터 윤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연구는 F. Varela, *Ethical Know how*, Stanford Univ. Press, 1999를 들 수 있다.

학문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학 이론의 실용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 교육의 방법과 효과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인격교육의 방법의 프로그램을 정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아동 교육 방법을 현대화 하는 길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³⁰⁾ 후자는 뇌영상을 적용하는 연구이다. 마음학 이론과 그 실제 적용의 방법을 위한 물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영상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물리적 근거란 마음학 이론과 실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그 변화 혹은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을 일종의 ‘마음지수’라고 한다면, 그것을 개발할 때 뇌영상은 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뇌영상 쪽에서도 뇌영상을 단독하고 해석하는 틀을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마음 이해의 틀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논한 것은 다만 연구의 구상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이에 동양철학적 마음 이해의 전통을 연결시켜서 동양철학적 마음 이해의 이론적 체계를 현대의 인문학적 맥락속에 자리잡게 하는 방법을 찾아본 것이다. 국내외에서 아직까지 유교의 심학을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적 주제와 연결시킨 예가 매우 드물고, 또 마음에 관한 연구가 철학이나 심리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학문들과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예가 드물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마음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여러 학문들을 하나의 폭

30) 이러한 연구의 선례로 다음 연구들을 거론할 수 있다. 강혜원·유권종·박충식, 「유교 심성론에 근거한 체화방법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자유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2집 4호, 한국아동학회, 2001. 유권종·최상진·강혜원·김경호,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구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청소년 예교육 모델 개발」, 『철학탐구』, 18집, 중앙철학연구소, 2005.

적에 종합하여 보고자 하는 구상을 논술한 것이다.

마음학을 통한 비교인문학의 추구는 사실 인문학을 학제간 연구의 주축으로 삼고자 하는 것, 특히 동양의 전통적인 마음 연구의 맥락을 현대의 학문맥락 속에 공동담론의 주제로 자리잡게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이를 구현하게 될 가능성은 많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학제간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에 증가할 것이다.

마음학은 아직 구상의 단계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 앞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더 자세한 경험적 사례와 그로부터 입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동양에서 개발된 마음이해를 비교의 준거로 삼아서 인문학 상호간, 인문학과 자연과학, 문화 상호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비교인문학적 연구방법의 정착이다. 둘째 그러한 방법이 시대적 문맥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도 하나의 기대효과이다. 셋째 교육현장과 사회현실에 적용 가능한 이론-실천이 통합된 마음 모형을 개발하여 후속연구를 촉진하려는 것도 그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서 인문학의 현실 적합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마음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중앙대학교)

참고문헌

『周易』

- 백종현, 「한국 인문학 진흥의 한 길」, 『인문정신과 인문학』, 아카넷, 2007.
- 연세대 문과대학 교수 30인 지음, 『인문학@미래를여는길』, 전통과현대, 2001.
- 고바야시 아스오 외 지음, 유진우 외 옮김, 『지의 논리』, 경당, 1997.
- 이인식, 『지식의 대융합』, 고즈윈, 2008.
- 이태수, 「학문체계 안에서 인문학의 위치에 관한 고찰」, 『현대의 학문체계』, 민음사, 1994.
- 이종흠, 「서양 근대초의 인문학과 인문정신」, 『인문정신과 인문학』, 아카넷, 2007.
- 강상진, 「서양 고중세의 인문정신과 인문학」, 『인문정신과 인문학』, 아카넷, 2007.
- 이진우, 『한국 인문학의 서양 콤플렉스』, 민음사, 1999.
- 정대현 외, 『표현인문학』, 생각의 나무, 2000.
- 조성택, 『해외 한국학과 연계한 국내인문학 진흥방안』, 한국인문사회연구회, 2002.
- 김동노,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학술정책』, 한국인문사회연구회, 2002.
- 김여수, 『인문학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제안』, 한국인문사회연구회, 2002.
- 박이문, 『통합의 인문학』, 지와 사랑, 2009.
- 국립국어원 지음,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사무침』, 푸른사상, 2008.
- 켄 월버 지음 김철수 옮김, 『아이투아이』, 대원출판, 2004.
- 최상진 외, 『동양심리학-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지식산업사, 1999.
- 최상진, 『한국인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
- 마이클 S. 가자니가 지음, 김효은 옮김, 『윤리적 뇌: 뇌과학으로 푸는 인간 본성과 생명윤리의 딜레마』, 바다, 2009.
- 김영진, 「표현인문학의 빛과 어둠」, 『신학과 철학』 3집,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01.

- 이상엽, 「문화인문학-인문학의 문화학적 기획」, 『해석학연구』, 한국해석학회, 2001.
- 유요한, 「비교종교학 연구의 최근 동향-학문적 엄밀성이 요구되는 비교종교 연구와 종교학」, 『종교문화연구』, 제8호, 한신대종교문화연구소, 2006.
- 류성민, 「비교종교학 연구의 최근 동향에 관한 논평」, 『종교문화연구』, 제8호, 한신대종교문화연구소, 2006.
- 이정모, 「인지과학적 접근에서 본 “마음” 개념의 재구성 및 심리학 외연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집 2호, 한국심리학회, 2007.
- _____, 2006년 한국심리학회 주최 심포지엄 “뇌와 심리, 적인가 동지인가?” 발표문 「신경적 설명과 마음 개념의 재구성: 인지과학의 새 움직임의 의의」.
- 유권종·최상진, 「한국인의 내면에 形象화된 ‘마음’: 한국인의 마음 모델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동양철학연구』, 34집, 동양철학연구회, 2003.
- 유권종·박충식·장숙필, 「인지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선 성리학의 예 교육 심성모델 개발(1)」, 『민족문화연구』, 37집,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02.
- 강혜원·유권종·박충식, 「유교 심성론에 근거한 체화방법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자유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2집 4호, 한국아동학회, 2001.
- 유권종·최상진·강혜원·김경호, 「한국인의 유교적 마음의 구성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청소년 예교육 모델 개발」, 『철학탐구』, 18집, 중앙철학연구소, 2005.
- 장성모 외, 『인성교육의 동양적 전통과 초등 도덕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연구보고 RR 96- I-1, 1-36, 1998.
- 문미옥, 「구성주의 유아교육과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문미옥·류철선,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 아동학회, 215-234, 2000.
- Harre, R. *The social construction of emotions*. NY: Blackwell, 1986.

- Moscovici, S.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Farr & S. Moscovici (Eds.), *Social representations* 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Mead, G. H.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 Miller, J. G. Cultural psychology: Implications for basic psychological theory. *Psychological Science*, 10(2), 1999.
- Shore, B. *Culture in mind: Cognition, culture, and the problem of mean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F. Varela, *Ethical Know how*, Stanford Univ. Press, 1999.
<http://www.krf.or.kr/KHPapp/div/hs/koreaResearch.jsp>
<http://www.humantherapy.co.kr/>

**The Methods and Direction of Comparative Humanities:
A System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Human Mind**

Kwon Jong Yoo

This article aims at looking for a methodology to make a new discussion about the human mind from a viewpoint synthesized with already established theories and plus the context of East Asian traditional understandings of mind.

In reflecting that in Korean academic circles the number of connecting theories of traditional Confucian mind learning to studies of cognitive science or psychology has been small and in Humanities area it is few times that studies of mind from the viewpoints of philosophy or psychology have met with ones from other field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ange of studying the mind must be broadened and synthesize various viewpoints of mind studies into a more comprehensive system.

This mind study using the comparative humanities methodology has two targets; the one is to make the humanities the main axis of this interdisciplinary studies, and the other to push the traditional context of Confucian mind-learning on the right track of the contemporary context of mind studies.

This mind study has not finished its formulation of its system and methodology, so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discuss more details. However it will be possible to explain more details with more examples of study experience and established facts by the methodology of this.

It will be expected by this study as follow: the first is establishment of the comparative Humanities on the authority of the mind

understanding system of Confucianism, the second is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ement that makes such an comprehensive or integrated methods to be reproduced infinitel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context. And the last is to promote succeeding studies by the means of developing a mind model integrating theoria and praxis that will be able to be applied to the field of education and social life. To maximize the suitability of the humanities of this mind study must be the reason why this mind study will be asked.

Key Words: Humanities, mind study, comparative humanities,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Human Mind, Confucian mind learning

유권중 e-mail: ykj111@cau.ac.kr

투 고 일	2010년 4월 13일
심 사 일	2010년 5월 6일
계재확정	2010년 5월 15일